

[윤봉택의 탐나는 올레(5) 제주올레 3-B코스

물마루와 성담이 있는 풍경 제주올레 3-B코스

왜 올레를 자주 걷느냐고 묻는다. 나는 걷는 게 아니라 올레를 순례한다고 전한다. 그대도 마음에 두겨운 게 있거든 한걸음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순례하라고 권한다. 나에게 있어 올레는 순례 명상의 아란이다. 일주일래(一週一來), 한주에 한 코스를 순례하며 자연과 함께 소풍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 이번 다섯 번째 순례는 제주올레 3-B 코스이다.

제주올레 3-B 코스는 2015년 5월 23일 개장되었다. 온평리 '둥개맛, 터웃개'에서 신산리·삼달리·신풍리·신천리·하천리·표선리 당계 백사장까지 14.6km, 37리이다. 3-A코스 20.9km, 53리보다 6.3km 짧하다.

하지만 3-A코스가 오름을 안아 넘는다. 3-B코스는 해안선을 품고 돌다가 신풍포구 거린올레에서 A코스와 다시 만나 같이 걷는다. 온평포구에서 표선 당계 '한모살'까지는 다양한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해안선과 그 해안선을 안고 있는 '성담'을 엿볼 수 있다. 코스가 완만하면서 해안 포구를 품고 돌기에 가족과 같이 걷기에는 최적 코스이다.

앞서 소개하였지만 온평리는 신화의 마을이다. 도내에서 가장 신당이 많은 마을 중 하나인데 신당이 9개 소나 된다. 둥개맛 포구에서 출발하면 도대불을 지나 셋개맛 서포구에서

3-A·B코스가 나뉜다. 서포구에서 350m 가면 성담 넘어 해안선으로 굽어 도는데 '용머리 일뿔담'이 있다. 이 담에는 '하물할망'이라고 하여 아이들의 피부병을 낫게 하는 당신이 있다.

해안선에서 도로로 나오면 '생이여'와 마주 보고 있는 '여맛은개'가 있고, 도로선 옆에 동굴처럼 원형 불턱이 있는데, 운수가 좋으면 물결 오가시는 쫄네 삼촌을 만날 수가 있다. 올레 따라 조금 더 가면 길 북쪽에 두 개의 '필맛'이 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온평리 앞동네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이었다. 이 못에서 서쪽 '애기죽은날' 해안까지를 '알바르'라고 하는데 신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이 계절 제주 해안선에는 준치를 걸어 해풍에 말리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작은 물두더기가 길게 누워 있어 불려진 온평리와 신산리 경계 '진말' 해안도 예외는 아니다. 3km 지점을 지나면 작은 포구처럼 만을 이루는 신산리 '만물' 해안이 기다린다. 여기에 서서 보면 종점 표선 해안선까지 한 눈으로 살필 수가 있는데, 순례하다 잠시 '범성굴' 앞 해변에 서면 해수욕할 수 있는 쉼터 시설이 되어 있다.

신산리 끝동네를 의미하는 '그들

에'에 '얇개'라고 부르는 신산포구가 있다. 여기에서 '얇개' 바로 서쪽 방향 도로 북쪽 가에 보면, 키 낮은 집을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담'이 보이는데, 아주 잘 보존되어 있지만 그 흔한 환해장성 안내판이 하나 없다. 집 마당으로 들어서면 닭장·통시를 비롯하여 제주 초가의 옛 정취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범의 아가리와 같이 불려진 '호근여'와 '우알'을 지나면, 농어가 많이 몰려든다는 '농개'와 쫄네 불턱이 있고, 올레 중간 스탬프를 찍는 신산리 마을카페가 올레 가에 서 있다. 카페 바로 서쪽에는 도로보다 낮은 우각안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어촌 박물관이나 다름 바가 없다. 마당에 들어서면 '송키'를 갈아 먹었던 돌랭이부터 감태를 쌓았던 늪급자리·통시·장광 등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눈을 날만큼 정겹다.

여기에서 '분드르' 해안을 지나면 대포라 부르는 삼달리 주아동 포구이다. 와강이(臥江里)이라 하는 삼달리 마을에는 제주노동요 가운데 테우노젓는 소리·갈치 낚는 소리의 어업을 부르는 도지정무형문화제 기념보유자 강성태 선생이 계신다. 포구에 잠시 앉으면 선생의 "우리 어망 날 날저에는 금이 한향도 배랏것만은, 해구 청산 불보재기 신세가 웬일



온평리 셋개맛 서포구(사진-윤봉택 제공)

인고"라는 애끓는 테우 노 젓는 소리가 파도에 출렁 거린다.

해안선이 번번하여 바다 날씨를 가늠하는데 기준을 삼았다는 '납세' 해안을 지나면, 삼달리 하동 불턱 '주어코지' 가기 전 해안에서, 신산리 왕석으로 쌓은 성담과는 달리 중석으로 쌓은 성담 풍경을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대기내'를 건너면 '큰개'라고 하는 신풍리 포구이다. 신풍리를 '웃내개', 하천리를 '알내개'라 부르다가, 천미전을 중심으로 다시 신천리를 '셋내개'라 부르게 되었다. 신천리는 1909년 당시 천미연대에 주둔했던 봉군들이 거주하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하며, 향족(鄕族) 거주하였던 곳은 '웃내개', 토족(土族) 거주하였던 지역을 '알내개'라 하였다.

이곳 신풍포구 거린 올레에서는, 온평리 터웃개에서 통오름·독자봉을 넘어선 제주올레 3-A코스와 온평포구에서 신산·삼달포구를 지나서 제주올레 3-B 코스가 만나 표선 당계 한모살 까지 6.6km 이어진다.

포구에서 '먹들개'와 '동진여'를 지나면 해안 능선에 큰 목장이 있는데, 바로 바다목장이라 부르는 신풍·신천마장이다. 신천리에서는 마

을 아래에 있다하여 '하목장'이라 부른다. 조조조 조정에 진상하던 말을 임시로 방목하였던 국마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잠시 쉬어가도 좋으니, 신천마장 아래 '고망난돌'과 '센동산' 능선에 기대어 경승을 감상하며 물마루를 바라보면, 칼날처럼 바위들이 솟아나 인간이 용궁으로 가는 올레를 막아버렸다는 '칼도리, 칼선도리'의 해안선 끝으로, 수심이 깊어 용궁으로 이어진 길이라 부르는 신풍마을 상군 쫄네 송씨의 '용궁올레' 전설이 절 소리로 울린다.

다시 일어나 '도리뿌리, 구진개' 해안 따라 가면 신천포구이다. 포구 서쪽 쫄네 불턱 입구에 보면, 시멘트와 돌담으로 작은 고풍을 만들어 용왕신을 모셔놓고 어부와 쫄네의 머정을 기원하는 돈짓당이 있다. 늙새바람의 길을 따라 '신천코지, 개앞'을 넘어 '배탕개'를 지나면, '새기미' 건너 '고분데기'에 신천리 고춧당이 있다. 쫄네와 어부가 단골인 이 신당은 용녀부인을 당신으로 모시며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린다.

성산을 신천리와 표선면 하천리의 경계인 천미전의 세월교 '배고픈 다리'를 지나면, '신천리 고춧당'에

서 갈라진 '하천리 고춧당'이 있고, 서쪽은 하천리 포구이다. 포구 서쪽에 '산물통'과 함께 바다로 이어지는 '갯봉오지' 해안을 따라가면, 봉문이라는 하르방이 처음 만든 원이라 불려진 '하르방원(垣), 봉문이원'이 열리면서, 바로 하천리 백사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원'는 돌로 담장을 둘러 썰물과 밀물의 간만조 차이를 이용해 고기를 포획하던 원시 기법 어로시설이다.

여기에서 하천리 '너브름' 백사장을 건너면, 바로 표선리 '소금밭'과 함께 '한모살' 백사장이 물결이랑 따라 펼쳐진다. '봉글레기(방울)'처럼 물이 솟아나는 밭이라서 불려진 '계금밭'을 지나면, 설문대할망의 흔이 담겨 있는 두둑이라 불려진 '당두둑' 송림이 나타나고, 그 자락 당계 머리에 제주올레 3-A·B코스 종점 안내소가 있나니, 표선에는 탐라의 민속을 대표하는 성읍민속마을이 잘 보존되고 있으니 살필수록 진귀하다.

윤봉택 시인
*「윤봉택의 탐나는 올레는 서귀포신문과 제주 의소리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코너로, 격주로 공동 게재됩니다.



온평리 애기죽은날 해안(사진-윤봉택 제공)

필자 소개 글

법호 相民. 윤봉택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해인사로 출가하여 1974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91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제주바람)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강정마을에서 포교활동하면서 농사 짓다가 서귀포시청 문화재 전임연구원으로 23년 공직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쟁계암 삼소굴에서 명상·간경·수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풍하고 있다.

승 축 진

서귀포농협보목지점장

양 동 현

서귀포농협보목지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목초 38회 동창일동

승 축 진

서귀포농협보목지점장

양 동 현

서귀포농협보목지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21회 동창회일동

취 축 임

제17대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

오 정 은
(예수영농조합법인 대표)

제17대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불교대학 제28기 회장 이상준외 법우일동

당 축 선

서귀포동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현 학 열

서귀포동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사모 회원일동